

## 철학에서 바라 본 '공간'

이중원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에 대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갖는 생각의 근저에는, 공간은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을 비우더라도 결코 제거되지 않고 남으며, 상상(혹은 추상)을 통해서도 제거될 수 없고, 그리고 세계에 대한 경험(혹은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러한 생각은 기원전 5세기 경 서양 사상을 낳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에 의해 철학적인 문제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공간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공간의 존재론적 의미를 매우 다양하게 그리고 논쟁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여기서는 철학사를 통해 드러났던 공간에 관한 다양한 의미들을 짚어 볼 것이다. 원자론자들에 의해 주장된 사물이 놓일 장소로서의 텅 빈 공간(void)에서부터, 물질과 공간을 구분하지 않았던 데카르트의 실체적·기하학적 공간론, 형이상학적 의미가 강한 뉴턴의 절대적·선재적 공간론, 공간을 모나드(monad, 단자 혹은 나누어질 수 없는 실체)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로 보았던 라이프니츠의 상대적·관계론적 공간론, 그리고 인간의 의식에 선형적으로 내재하는 존재로 본 칸트의 선형적·관념적 공간론, 그리고 공간에 관한 아인슈타인의 조작주의적 분석에 이르기 까지, 그 다양하고 논쟁적인 의미들을 음미해 볼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다양성이 공간에 관한 현대 과학에서의 연구에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